

# 제3인터넷은행 흥행 찬바람... 규제장벽에 '눈치만'

10~15일 예비인가 신청 접수  
'소소스마트뱅크' 공식 도전장  
토스·키움뱅크, 재도전 불투명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공식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곳은 '소소스마트뱅크' 1곳. 카카오뱅크의 독주를 견제할 만한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하기 위해선 대형 금융업계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인터넷은행의 매력에 약한 데다 규제장벽이 높아 도전장을 추가로 내밀지는 미지수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가 오는 10~15일 진행된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비인가 대상에 선정된 최대 2곳의 컨소시엄에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라이선스를 내줄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일까지 인가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신청 희망기업의 준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있는 곳은 재수

생인 토스뱅크와 키움뱅크다. 이들은 상반기 컨소시엄을 꾸려 지원했지만 금감원 산하 외부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토스뱅크와 키움뱅크를 두고 각각 자본안전성과 혁신성 부족을 지적하고 재도전을 독려했다.

그러나 이들의 재도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토스뱅크는 우선 자본 조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토스의 대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는 자본중 75% 이상이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구성돼 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투자자의 상환요청에 따라 돌려줘야 하는 부채성격을 갖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일정〉

2018.12	인가 매뉴얼 관련 온라인 Q&A 페이지 개설
2019.01	인가설명회 개최, 평가항목·배점 발표
2019.03	예비인가 신청
2019.05	예비인가 심사, 토스뱅크 키움뱅크 부적합 판정
2019.09	예비인가 재추진 및 종합 컨설팅 진행
2019.10	예비인가 신청
2019.12	예비인가 발표

/금융위

있어 실질적인 자본으로 볼 수 없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거나 상환권을 삭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토스 측은 재신청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자본금 요건은 250억원이지만 나중엔 자본금을 조 단위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자본확충 능력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투자자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은행업 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키움뱅크도 재도전 여부를 확정 짓지 못한 상태다. 당시 키움증권과 하나금

융그룹, SK텔레콤 등이 팀을 꾸려 자본력만큼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 다만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는다면 새로 유입되는 고객층을 대상으로 자산관리(WM) 역량을 높일 수 있다"며 "약점을 보완해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공식적으로 도전장을 내민곳은 '소소스마트뱅크'이다. 소상공인들의 연합으로 추진된 소소스마트뱅크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소스마트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평가항목 중 '포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자본금 조달 능력이 부족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한다.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4일 국회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존하는 인터넷은행 조차 증자에 한계가 있는데 새로운 회사가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컨설팅이나 홍보를 하더라도 대주주 적격 심사요건상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이 삭제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보유한도가 34%까지 확대됐지만 실제로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기 위해선 금융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심사는 금융관련 법령·조세처벌법·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지 등을 보고, 심사 중 금융위·공정위 등으로부터 조사·검사를 받거나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심사절차 중단이 가능하다.

현재 케이뱅크는 주요 주주인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주주적격심사가 중단돼 자본 확충이 어려워지자 현재 일부 대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처음 출범한 케이뱅크조차도 인터넷전문은행법의 문턱이 높아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이 늦어도 오는 12월 중순에 심사를 통과하면 카카오뱅크·케이뱅크가 지난 2015년 11월 29일 예비인가를 받은 뒤 4년 만에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출범하게 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KB국민은행, 지역아동센터 학습지 지원 사업 점검

### 동등 학습기회로 교육격차 해소 기여

KB국민은행은 지난 2일 경기도 광명시 힘찬키움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지역아동센터 학습지 지원' 사업 진행 현황과 아이들의 학습여건을 세심하게 살펴봤다.

KB국민은행의 지역아동센터 학습지 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올해 9월부터 실시한 사회공헌활동이다.

앞으로 1년간 수도권 402개 지역아동센터 내 총 2190여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전문 학습지 및 방문교사의 체계적 지도를 통해 기초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홍민영 기자



KEB하나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업무협약

KEB하나은행이 서울 강동구청,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일 서울 강동구청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전자카드제의 도입으로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규 KEB하나은행(오른쪽부터)이 이정훈 강동구청장,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과 포즈를 취했다. /KEB하나은행

## 미래에셋생명 月 1000원으로 女 3대암 보장

‘온라인 잘고른 여성미니암보험’

미래에셋생명은 10월 신상품으로 소액으로 질병률 높은 여성 3대암을 보장하는 '온라인 잘고른 여성미니암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여성이 걸리기 쉬운 3대암인 유방암, 갑상선암, 여성생식기암에

대해 30세 기준 월 1000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 500만원을 보장한다. 가입 연령도 20세부터 50세까지 확대했다.

보장액은 유방암, 갑상선암, 여성생식기암 모두 500만원(최초 1회)이다. 갑상선암의 경우 치료비 감소 추세에 따라 보장금액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500만원을 그대로 보장한다. /김희주 기자 hj89@

## 우리은행, 美금융당국 내부통제 점검 통과

美 법인·지점 선제적 투자로  
국제표준 수준 관리체계 구축



우리은행은 미국에서 자금세탁 등의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체계를 현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구축하고, 탄탄한 관리역량을 바탕으로 영업망을 확장하며 현지 개인과 기업 대상 영업을 강화해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우리은행은 미국 현지 법인인 우리아메리카은행을 비롯해 뉴욕지점과 LA지점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지 진출 이후 미국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내부통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투자와 해당분야의 전문인력 채용을 선제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은행은 최근 실시된 미국 금융당국의 종합검사를 무난하게 마칠 수 있었다는 게 우리은행의 설명이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내부통제 체계를 견고히 하며 미주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달라스, 시카고, 시애틀, 덴버에 영업점을 신설해 교민을 상대로 영업을 강화하며 영업수익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2017년 6400만달

리에 이어 지난해 7100만달러의 영업수익을 달성했으며, 올해 8100만달러 상당의 영업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1984년 뉴욕에서 법인을 설립한 이후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 미주 전역에 25개의 영업망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은행은 뉴욕, LA지점의 지상사 영업을 활성화하고, 수익성 높은 우량 신디케이트론을 집중 발굴하는 등 IB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뉴욕지점은 올해 초 국내 자산운용사의 항공기 구입에 필요한 항공기금융을 주선하는 등 글로벌 IB 우량 자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홍민영 기자 hong93@

## 서민금융 채무자 절반 추가 대출... 대부분 고금리

제윤경 의원 "맞춤형 복지 확대  
경제적 재기정책으로 전환해야"

4대 서민금융 채무자의 약 절반이 1건 이상의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의 약 70%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서 발생, 채무자 맞춤형 상담을 통한 복지 확대와 경제적 재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정부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바퀴드림론·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의 채무자는 164만338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7만4966명

(47.2%)이 최소 1건 이상 추가 대출을 받았다. 추가 대출이 4건 이상인 채무자도 15.5%(25만4582명)에 달했다.

추가 대출의 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22조6540억원 중 대부업 대출이 8조9719억원(39.6%)으로 가장 크게 차지했다. 저축은행은 7조5694억원(33.4%)으로 순을 이었다.

바퀴드림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2만2264명 중 72.3%(1만6098명)가 추가 대출을 받았다. 31.3%(6973명)은 4건 넘게 따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바퀴드림론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이용해서 중은행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은행권 서민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는 전체 채무자(77만4479명)의 39.1%(30만3065명)가 다른 곳에서 자금을 더 빌렸다. 또 햇살론은 55.8%(75만9565명 중 42만4410명), 미소금융은 36.1%(8만7073명 중 3만1393명)가 추가 대출을 또 받았다.

제윤경 의원은 "서민금융 상품만으로는 자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중·저신용자, 저소득층이 결국 고금리 시장에 다시 진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민금융 채무자 중 절반 가까이가 추가로 빚을 낸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금융 상품을 무작정 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맞춤형 상담을 통한 복지 확대와 경제적 재기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